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李載昌
主幹 宋藝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㉓3130~9
本社直通 ㉔8498

發行 每週木曜日

今週一言

野心에 불타는 밤을 새운뒤에는 잠못이루는 후회의 밤이 계속된다.

<글룸슈토크>

반한大學校차우總長來校

『佛敎는 智慧의 宗敎』

24日、中講堂서 紀念法會盛況

월남「반한」대학교 총장「팅·민·챠우」博士(48歲)가 24일 본교를 내방하였다. 「차우」스님은 경희대학서 주최한 세계대학총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했던바 同회의를 마치고 한국불교계및국내 유명사찰을 둘러본 다음 본교를 방케 된것이다. 「차우」스님은 24일 오전 10시 총장金東益박사및 학·처장들과 불교교육에 대한간담회를 가졌다.

<차우總長과 李貨永博士>

<사진은 楊致光씨>

楊致光씨 또 하나의 快擧

農業圖書館 建物 建立確約

圖書完備·最大規模로

本校에 農業關係圖書館이 지난 24일 皇建門右便의 빈터 3백평에 현대식 「農業도서관」이 낙후된 韓國農業現代化를 위해 힘쓰겠다고 지난23일 봉은사에서 金東益總長을 비롯한 金澈基理事長, 金熙坤農大學長, 趙昌華總務處長및 다수의 농대교수들과 가진 연석회의에서 확약했다.

이와같은 楊씨의 의사는 작년 12월에도 前總長에게 書面으로 표시, 건물의 설계에 착수하였는데 建物은 設計가 끝나는대로 곧 착공하여 금년내로 완공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에 착수하게되면 모든 건축자재도 楊致光씨 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용하여 난방, 냉방 장치까지 결들인 현대식건물로 아담하게 지을 예정인데 내부구조는 학생열람실, 교수연구실, 교수회의실 학생휴게실등을 구비하게 된다.

지난 65년도부터 현재까지 약5천권의 귀중한 國內外 農業書籍을 기증한바 있는 楊致光씨는 農業圖書館이 完工되면 1次的으로 3만여권의 중요한 農業關係圖書를 연구도서실 또다시 도서관의 운영자금 등을 아울러 약속도 했다.

이와같은 도서관이 건립되면 국내에서 가장 큰규모의 농업도서관이 되는데 楊씨는 계속 조달하겠다고 말하면서 楊씨 자신 「이것은 나라·나라·인을 발전케 되는 지혜의 종교」라고 강조하면서 진리를 소중히 할것, 봉공정신의 가치관형을 이룰것, 여하한 예속과 의존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것, 지식을 바르게 활용할것등 佛陀의 가르침을 4가지로 요약하여 말하였다.

이어 「반한」대학의 校舍전경, 屋上의 禪院·불교에 관한 ①理學士·工學士以上 가진자로서 ②병역의무를 필하고 ②英語또는 독어를 잘하고 이해하고 ④건전하고 신앙이 있어야 사상이 나실하며 ⑤착학연구분야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자인데 助敎採用試驗에 응시하고자하는자는 ①卒業증명서및 ②학장의 추천서1통 ③이력서1통 ④사진1매를 具備하여 대학교무과에 제출해야 된다.

金剛經特講 盛況裡에마쳐

지혜의 眞常淸淨함과 不變不移함을 金剛의 견실함에 비유하여 「賢」의 가치 초청을 받아 全國TV방송 관을 설정해준 「金剛經」法 망을 통해 佛敎音樂발표회 會가 8백여 불교신도들이 를 가졌다. 경청하는 가운데 本校中 創團이래 두번째의 발표 講堂에서 성황리에열렸다. 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불교식에서 학식 사용되 일주일간 吾虛스님 (대학교 있는 「四弘誓願」과 「讚

卒業 앨범사진 5일까지 촬영 마치도록

1968학년도 앨범위원회는 졸업예정자들의 제2차 앨범촬영기간을 지난18일부터 오는7월5일까지로 졸업예정자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앨범촬영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이차 촬영기간을 설정케된 것이다. 촬영장소는 본관2층 진실이다. 단 여학생은 고다공원 옆의 사진예술원에서 촬영한다.

郭군最優秀賞 피를하늘에뿌려

인하공과대학 제1회학장 사지경달 全國男女운변대회에서본교郭照文(政2)군이 지난 24일 一般및大學부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여 大會最秀賞인 경기도 경찰국장상을 차지했다.

反共精神昂揚과 번영에찬 선원원장·月精寺주지) 용산法會는 白牛精舍(서울성북구 眞覺소재)를 진입하바이번 法會를 위해 보시하 이독된 것이다.

조국에 애국민에게 백박을 두드려 師로 매일 오후 6時부터 愛國精神을 고취시키기 위해 열린 同 丁安費日보살이 자신 대회에서 郭군은 1백75명 거쳐 「피를 하늘에뿌려라」 라는 演題로 열변을 토하여 大會最秀賞인 경기도 경찰국장상을 차지했다.

合唱團 發表會가져 18일、東洋TV招請으로

본교 合唱團은 지난18일 오후 10시20분 東洋TV의 초청을 받아 全國TV방송 망을 통해 佛敎音樂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합창단원들과 함께 출연한 학생처장 李載昌교수와 黃晟起불교대학 교수는 범패와 현대불교음악의 문제에 언급하여 「불교음악이 하루속히 현대화되어야 할것은 물론 보다 大衆社會의 깊은 이해를 받아야 된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만이 갖는 고유한 문화유산을 그 승고한 정신과 함께 몰려받는데 각별한 자세가 촉구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公開發表는 外國에서도 아직 없었던 대학생 불교합창단의 첫 발표회로서 불교음악의 현대화가 능성등에 敎界및 音樂界의 佛敎」등 두곡을 우리말로 옮겨 同團지휘자인 韓萬榮(서울音大강사)씨가 作曲한 것이다.

<사진은 崔廷赫선수>

멕5輪代表에 崔廷赫선수를選拔

제19회 「멕시코」올림픽파견 아마레스링 후보선발전이 23일 YMCA실내경기장에서 거행, 본교선수 崔廷赫(行政대학원)군이 페더급우승을 차지, 올림픽선수로 선발되었다.

<사진은 石塔誌壺>

石塔誌壺등 5點

李秉珏씨 博物館에 기증

지난15일 본교 박물관에는 石塔誌壺과 石塔誌石 2點, 신라향로 1點을 들여왔다.

이 고분들은 기증한 李秉珏氏가 또 바있는 향로를 기증한 것이다. 이 石塔誌壺는 신라 민애왕을 追薨해 세운탑 속에 있는 것이다. 향로는 전에도 이 고려초에 세운탑의 塔誌이며 나머지 1點은 이 조때 이탑을 중수할 때 넣은 塔誌이다.

二部大부활등 建議

三處長 초청강연

……二部大學生會

2部大學에서는 지난20일 하오 6시 B102강의실에서 2부대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處長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2部大學生회장 金仁植商·4)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각 처장의 학교상황분석과 동국인들의 나아가야할 方向등에 관한 강연을 갖었다.

李昌培교무처장은 이날 강연에 『의타심을 버리고 스스로 깨닫고 알맞은 참 생활을 하라』라고 말했으며 李昌植교무처장은 『독립정신을 길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趙昌華총무처장은 학교의 상황을 분석설명한 다음 격려의 말을 한편, 2부에선 2부학생들의 학구태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金相俊(政·3)군 등 2부대학생들이 학교당국에 제시한 요망사항 구실을 줄것, 둘째 2부대학 교수진의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것, 세째 2부대학을 부활시킬것.

曹馨植소령 學訓團에새로부임

故宋天植소령의 殉職으로 공석중이던 ROTC 전임 장교에 曹馨植소령이 6월 15일字로 새로 임명된 曹소령은 취임첫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노력하는 후배생들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하면서 ROTC의 발전과 공헌해보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曹소령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略歷

▲1932年12月=경기도 인천출생 ▲1950年=연백농고卒 ▲1954年2月=소위임관 ▲1954年3月=육사단 ▲1973年=대소대장 ▲1967年=소령진급

助敎채용試驗

産大、理學部出身

學校當局에서는 文理大學 理學部와 産業大學의 助敎 採用試驗을 오는7월3일 시한.

응모자격은 ①理學士·工學士以上 가진자로서 ②英語 독어를 이해하고 ④건전하고 신앙이 있어야 사상이 나실하며 ⑤착학연구분야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자인데 助敎採用試驗에 응시하고자하는자는 ①卒業증명서및 ②학장의 추천서1통 ③이력서1통 ④사진1매를 具備하여 대학교무과에 제출해야 된다.

農研部 定總

夏期奉仕계획세워

會長에 李順燮군

농촌연구부는 21일 4T·C명예위원 전원을 交 동연구부실에서 정기총 舊하고 새로운 자부진의 임원개선과 금년 여름방학중의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예년의 피상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事前에 현지답사를 갖기로 결정했다.

올해 봉사활동대상지역은 忠南論山郡 城東面月城里와 京畿道富村郡龍柳面乙3里의 2개地區로 정했다.

이중 月城里는 동연구부 정부의 한글전용화 움직임과 보조를 같이하여 새 맞춤법을 일으켰던 R·O·T·C명예위원 전원을 交 오전11시 과학관앞에서 명장수여식을 趙徹權단장이 교관, 조교, 후보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가졌다.

趙단장은 훈시를 통해 『R·O·T·C의 임무는 훌륭한 장교로서 국가에봉사할 수 있는 資質을 연마하는데 있다. 이런 점을 항상 머리속에 간직하여 주기를 바라고 없기를 바라며 군인 정신에 입각한행동을 하기에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된 명예위원은 다음과 같다.

▲명예위원회 위원장겸연대장=朴商俊(農學科·4) ▲명예위원회 부위원장겸부연대장=安永男(林·4) ▲명예위원회 위원겸 인사군수참모=朴容敏(英·4) ▲명예위원회 위원겸 정보작전참모=全賢秀(政外·4) ▲대대장=鄭光勳(商4)

自治委 交替

委員長에 朴商俊군

▲部長=李順燮(林學科3) ▲次長=宋濟琳(林學科2)

文學會 臨總

事業計劃 再調整

東國文學會는 21일 오후5시 女學生식당에서 사업계획과 회원간의 한 작품활동을 하기 위한 의견교환등을 하였다. 同문학회는 정기총회 때 월 정기적인 合評會를 가질 것과, 東國文學燕개최, 作品集발간등을 계획했었으나 이번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까지 合評會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했었다. 그간 부진했던 활동을반성하고 회원들의 참여의식과 주체성확립및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자리에서는 우선作品集을 2學期개강과 함께 발간키로 결정했다.

국어운동 학생회=

나자신부터 한글을…

26일、創立總會가져

市內 20個男女共學大學 女學生會長회의

20일、본교 女學生會館서

지난 20일 오후5시 여학생회관에서는 제7회 시내남녀공학대학 여학생회장 연합회를열 계획도 모였다. 이자리에서 李載昌학생처장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여성상을 확립하는 기계가 되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李처장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이 풍조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이

佛教의 教育的지도원리를 中心으로

○…지난 24일 중…○
○…강당에서 가…○
○…진 월남의「반…○
○…한」大學校總…○
○…長「틱·민·차…○
○…우」博士의 강…○
○…연은 兩校가…○
○…모두 佛敎大…○
○…學이라는 點…○
○…에서 매우 意…○
○…義깊은 것이…○
○…었다. 본교…○
○…총장을 비롯…○
○…한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
○…데 가진「차…○
○…우」 총장의…○
○…강연要旨를엮…○
○…는다。 …○

偉大한 教育者 부처님

〈「민·챠우」總長 강연요지〉

總長님, 敎職員 그리고 學生 여러분, 「반·한」 大學校를 대표해서 「반·한」 大學校 敎授 學生들이 여러분에게 보내는인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海印寺를 느꼈다。이때 세워진것이 바로「반한」대학교이다。「반한」대학교총장「틱·민·차우」스님은 말하길『이 대학교는 배움의 전당이지 소승불교나 대승불교의 선전매개체가 아니다。나는 대학교를 정치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나의 활동범위를 교육 하나로만 제한시켰다。한번은 어떤외국 교수가 나에게 왜대학교를 전쟁동안에 세웠냐고 물었다。나는 전쟁은 파괴적이고 산인과중오를 뜻하는반면 대학은 건설적이며 또 생명을존중하는것을 뜻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진정한대학의 정신은 정치나 종교가 필수없다。

「반한」대학교가 세워진 후 오직 3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처음엔 건물도 없이 學院을 빌려 썼으나 지금은 새건물을 완성하고약 2천名 이상의 학생을 가지고 있다。학문연구 분야도 佛敎·文學·사회과학 등으로 범위가 넓으며 어학실습실도 가지고 있다。佛敎는 심리학、논리학、윤리학등 형이상학적으로 나눠져공부된다。

사회과학분야는 정치학、경제학、사회학、상학、인류학등으로 구분된다。

그 규모가 작음에도 「반한」대학교는 다른일반대학의 활동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있다。1만5천권의서적을 보유하고있는 도서관、연제나 시원한 음료와 경양식을 먹을수있는 간이식당、그리고 학교신문과 여러가지 서적을출판하는 校內출판소 등이 있다。

대학本部 건물의 대기실 思索의 房이 있다。이곳은 아담하고 조용한 정원이 있어서 신수양을 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어느정도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도 이대학엔 많은 빈틈이 있다。「차우」총장은 『과거 우리가 걸어온길은 험했다。또 앞으로갈길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그러나 살아있는한희망이 있다는 말처럼 교육이 있는곳은 젊은이의 꿈틀거림이 있고 우리의미래를 위한 희망이 있다』고말한다。

「반·한大學校」

總長 來校로 더욱 가까워진 越南의 佛敎大學校

<戰爭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佛敎전통을 확립한「반·한」大學校 本部>

수도「사이공」에 자리잡고 있는「반한」大學校는 1964년에 월남승불교연합회에 의해 설립됐다。宗敎의 有無에 관계없이 개방된 이大學은 교수、학생、사무원들중의 많은수가 불교도이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들중엔 스님들도 자주 눈에 뜨이기도 한다。

「반한」대학교는 東西및 과거 현재의 지식을 가르치고 연구하지만 오늘날 월남이 처하고 있는 많은 問題點이 요구하고 있는 필요성에도 응점을 두고있다。「반한」이라는 학교 이름은 옛날 월남의 황금시대인「트란」과「이」王朝때의 저명한스님「반한」의 이름에서유래된것이다。

1964년「고·딘·디엠」정권이 무너지자 월남내에있는 여러 불교宗派가 合해졌다。그러나이들은 경험이많은 지도자와 훈련된 전문가들의결집을 이룬것이다。「반한」대학교이다。「반한」대학교총장「틱·민·차우」스님은 써서 인간을 隷屬시켜、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부처님은 여하한 종류의奴隷도、精神的인 奴隷까지도 반대하시는것입니다。남에게 隷屬되기를 願하거나、또는 남을 隷屬시키려는 사람들과 理念을 佛敎는 반대할뿐입니다。

善과 惡은 부처님에게는 순전히 倫理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智識과 理解와 智慧의 문제인것입니다。佛敎의 입장에서는 貪慾을 倫理的 惡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욕심을 낸 對象에서의 心身의 반응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이 반응이란 바라는대상을 自身에게 끌어오는 태도입니다。마찬가지로 분노는 싫은 對象을 자신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貪慾과 분노는「나」라는 것이있다고 妄執할 때 나타납니다。그「나」라는 것이 貪慾하는 바를 希求하여 우리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며、그「나」라는 것이 싫어하는 바를 멀리 여기위해 우리는 갖은 수단을 다하는 것입니다。따라서 善과 惡의 문제는 倫理의 문제가 아니요、그 보다는 오히려 迷妄과 無知의 문제라는 것을 알겠읍니다。무엇보다 먼저 그 患者의 病의 眞相을 잘알아야만 할것입니다。敎育이 그 効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된 사실、다시말하면 인류와 사회의 眞相에 근거를 두어야만 할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의 初轉法輪 때에 四聖諦를 說하게 된 까닭이며 그의 아들「羅喉羅」에게 장탄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敎誡하신 까닭인 것입니다。바꿔 말하면 佛敎는 虛言者의 宗敎가 아니요 眞實을 두려워 하는 者의 宗敎가 아닌 것입니다。거짓 平和、거짓 倫理、거짓 非暴力、그리고 거짓 自由와 正義는 佛敎안에 자리를 마련할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둘째 가르침은、인간은 물질과 정신、色과 名、肉體와 靈魂과 같은 두 가지 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人間의 病을 치료하며、일체의 隷屬에 도전하며、그리고 知的 태도를 증진시켜 人間의 價値를 드높입니다。이 人間價値에 대한 尊敬은 부처님께서「자신을 尊敬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 뿐이요、자신을 해탈시키는 것도 오직 자신뿐이며、부처는 다만 指導와 忠告의 구실을 할 뿐이라」고 말씀 하실 때에 가장 잘 나타난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이 강연을 마치면서 네 가지 點을 특히 강조하고 싶읍니다。첫째는 虛僞를 厭惡하고 眞理를 尊敬하라는 것이며、둘째는 精神과 肉體의 어느 一方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兩面을 調和있게 敎育을 施行하라는 것이며、세째는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 뿐이요、자신을 해탈시키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며、부처는 다만 指導와 忠告의 구실을 할 뿐이라」고 말씀 하실 때에 가장 잘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날(7월中旬)이다。里人民委員長집에서 군중대회가 있다고 하여 잠더니 젊은 사람들은 모두 人民軍에 지원 하라는 것이다。나도 징집에서 아깝게도 30代 城부락민까지 지냈다。낮에는 山中 질주히 드러내기도 하고 때가 여름이라 혹은 곡식밭에서지기도 하였다。그때 그 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7월中旬)이다。里人民委員長집에서 군중대회가 있다고 하여 잠더니 젊은 사람들은 모두 人民軍에 지원 하라는 것이다。나도 마나 지냈던지 벌써 단풍이 물들고 오동나무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 날밤 이라 혹은 곡식밭에서지기도 하였다。그때 그 때에는 山中 질주히 드러내기도 하고 때가 여름

自己反省삼아 따져보면

「學究에 전념했으나 大學生들의 現實參與에 관해 그간 많은 論議의 대상이 되어왔다. 과연 大學生들이 現實參與를 할만큼 主體性이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大學은 自由와 正義와의 眞理本舘다. 그러나 理性을 사랑하는 大學社會에서 벗어지고 있는 속악상은 世人의 눈을 흐리게 하고있다. 정말 大學은 「成人幼稚園」으로 타락했는가.

이에 本社는 大學人의 現實參與와 廢止論까지 대두되었던 自治活動을 따져보고, 보다나은 大學生자질 향상을 모색해보는 의미에서 임의로선정한학생들을 상대로 懇談할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整理 楊澤圭

大學生의 現實參與

최근 우리나라 學外나가 문제다. 행동이 본래의 目的에서 벗어나 규탄받아야한다. 우선 目的이분명해야한다.」(鄭), 「진리만 탐구한다는것은 잘못이다. 프로 政治人은 학시 자기의견의 발표를 벗어나지 못한다. 學問에서 우러나오는 正義는 과감하게 행동에뛰어들어갈 수있어야한다」(林), 「行動이전제 不義를 시정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學生의 신분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행동에 옮길수 있다. 사회가 무력해진때 말폭발적인 행동을 근절돼야한다. 學究도 하나의 現實참여다. 비판을 가할 수는 냉철한 理性을길러야 한다.」(李), 「知性人이라면 깔보다는 붓을들어야한다. 우리는 社會에참여할수있어도 社會에서는 學園을 간섭못하도록 힘써야한다」(梁).

以上과같이, 약자의 견해차와 나타내고 있으나 고급으로 시켰죠. 그 다음에 참모라는 學生이 나 타났는데, 강이 식사나 따라갔죠, 가는길에 우리과(社) 생들을 만났기 때문에 같이갔 읍니다. 참모는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했어요. 이왕이면 골탕을 먹이자, 실컨 먹어치우고, 선거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읍니다」하고 씁쓸하게웃는다.

또 일렬운동 이라는 것이있다. 등교길의 양편에 늘어서서 「부탁」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學生들은 마치 사열하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낀다.

과연 이렇게 「골빠진」 방법으로 학생회장직을 확보한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것인가. 學生自治制의 폐지설이 대두한 이유가여기있다.

학생회장이 되기위한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자기P·R의 방법이 있고 이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비열한방법이나고서도 다른 方法이 있을것이다. 이것은 평소 자신의 꾸준한 노력뿐이다. 일할수 있는 能力배양을 평소에 하생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해줘야한다.

너무 모멸적이다. 이 판국에 무슨 學問의 꽃을 피울수 있겠는가. 鄭군같은 自治회가 정이렇다면 폐지해버려야 한다면서 「영웅의식에 사로잡힌자들을 앞세울 필요가 뭐있느냐」고 강경히반발하기도한다. 다른 학생들은 현자치활동에 대해서는 퍽 회의적이나, 서클을 장려하고 學生들의 자립을 위해 「있어주긴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選擧의 양상

大學選擧가 기성 정치인이상으로 타락해버렸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엘리트라 自處하는 大學의 선거풍토와, 과연 大學生活에 鼓舞的이냐, 따져볼 필요가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린이유는무엇인가. 첫째, 후보자의 本質的인 자세가돼있지않다. 둘째, 유권자인 學生의 권리행사하는 태도가 역시 돼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풍토가 더욱 기세등등하게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기성선거보다 더욱 악랄하고비열하다. 대부분의 學生들은 후보자의 유혹을 뿌리치기에 어렵게 전전한다. 그것은 현사회가 分業化하고, 「노트르담大學」에서 영위하는 「토마스·맥케게나」는 68년도 미국 대학졸업생을 하마디로 「어중잡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미국의 사고방식을 고치려는 마지막 과격론자이다. 만일 우리가 모든사람사이에 교량구실을 할수있다면 모든사람의 구세주가 되었을 것이다」고말한다.

미국의 生活方式 교당국에 적절한 교육을 세웠으며 파면당한 교수 인 금년도 졸업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모를 받아들여왔다고 「펜 실바니아大學」에니스·월린」군은 말한다. 우리의 世代는 참을수없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는 준도행 동이 傳統이나 國民전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수법을 후보들에겐 골탕을 먹여야한다, 준다니까 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학생기질이 이번졸업으로 끝나는것은 아니다. 사실 가장 심하게 예모를 하고있는것은 지금의 2, 3학년생들이며 오히려금년졸업생은 미국의 전통을 잘받아들일것이라 생각하고있다.

「노트르담大學」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68년도 미국 대학졸업생을 「어중잡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미국의 사고방식을 고치려는 마지막 과격론자이다. 만일 우리가 모든사람사이에 교량구실을 할수있다면 모든사람의 구세주가 되었을 것이다」고말한다.

과거 그들은 군대징집에 반대하는 데모를 비롯하여, 反戰, 그리고 학원자립 교육을 실현되어야 한다. 內省的이고 分析的인 금년도 졸업생들은 결국

韓國企業 휴우먼·리레이션의 變態와

人間關係의 輕視 크게대두된 人的인面

張厚相

企業의 3要素 즉 人, 物, 화폐中 취급하지 않고 최근美國經營學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부각되고 있는것이 「人」에 관한문제 즉 人間문제이다。따라서 오늘날 機械生産工場에서는 경영을 합리화하여 생산능률을 提高하기위해 人間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하며 人間을 기계로서 취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이 작업자체가 구성원으로서 대하고있다。이러한 관념은 周知의 사실이다。

<1>

3次에 걸친 「호오손」실험의결과 生産態率을 좌우하는 것은 物的인 諸조건 如何에 관계없이 人的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케되었다。즉 비용의논리 또는 능률의논리에 의하여서만 生産能率을 증진시키려는 것은 무모한짓 이라는것과 생산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역시 「作業者個人의 情感」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않된다는것을 알게되었다。따라서 조직내에는 「自主的組織」이 존재하며 그러한 인간본연의 감정에 의하여 형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에 큰힘을 미치게하는것이 內在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것이다。이 결과기업경영의 노동문제에 있어서 作業管理 문제가 대두된것이며 여기서부터 휴우먼 리레이션이 「作業者個人의 情感」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않된다는것을 알게되었다。따라서 조직내에는 「自主的組織」이 존재하며 그러한 인간본연의 감정에 의하여 형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에 큰힘을 미치게하는것이 內在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것이다。이 결과기업경영의 노동문제에 있어서 作業管理 문제가 대두된것이며 여기서부터 휴우먼 리레이션이 「作業者個人의 情感」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않된다는것을 알게되었다。따라서 조직내에는 「自主的組織」이 존재하며 그러한 인간본연의 감정에 의하여 형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에 큰힘을 미치게하는것이 內在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것이다。「매그레간」교수는 휴우먼 리레이션의 내용으로 ①작업외의 전 造成 ②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집합 ③작업자체의 민족 ④경영참여등을 들고있다。

첫째 작업의 造成이란 經營政策이나 政策실시에 영향을 주는심리적 사회적으로 사람을 파악하므로써 해결할수있다고 보고있다。특히 여기 날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업 활동의 自由를 보장받기위해서 人事에 관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고말하고있다。「매그레간」교수는 휴우먼 리레이션은 결국 한국의 리레이션는 형태구조면에서 서울일수 없는것이다。

본人이 생각컨때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제일불만시을 가지고 있는것은역시 임금이다。이 두가지 결과로써 우리는 다음과같은로써 즉 美國에서 있어서의 노동자 (종업원)와 한국 노동자 (종업원)와의 知的水準의차이 말하면 企業의 前者는 최소한도의 운영방침및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두째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집합에서 同教授는 人間의 不信을 전제로하고 인간은 태만하고 게으르고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나타내지않는다 했다。한편 그것에 반대적인 假說로서 인간은 自我充實로서 조직목표를 위하여 노력헌신 할수 있다고 했다。따라서 이러한 것을 잘 調整하므로써 人間을 조직목표 달성에 헌신케할수있다고 示唆하고 있다。

<2>

매그레가(Mcgregor) 교수는 人事管理가 line경영자의 가장중대한 책임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휴우먼리레이션(Humdn Reldtion)은 과연어디까지 발전해왔나 하는 휴우먼리레이션의 變態와 휴우먼리레이션은 과연한국현실에 적용가능한것인가? 하는문제를 일부분이나마 究明하여 보기로 한다。

이것이다。이 문제의 근본低意는 하급구성원을 경영에 參與시켜 좋은 반응시키고 경영자의 괴로움을 그들로 하여금 인식시키고 보다나은 경영자의 양성에도있는 것이다。

<3>

위에서 휴우먼 리레이션의 몇가지 새로운 견해를 보아왔다。그러한 諸企業에 있어서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적 難題가 너무나많다。결론적으로 말해서 1920년에 있었던 호오손 실험의 결과까지도한 국기업의 인사관리에서의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적인 휴우먼 리레이션은 볼때 이러한 휴우먼 리레이션는 결국 한국의 기업사정과 모든 형태구조면에서 서울일수 없는것이다。

本人이 생각컨때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제일불만시을 가지고 있는것은역시 임금이다。이 두가지 결과로써 우리는 다음과같은로써 즉 美國에서 있어서의 노동자 (종업원)와 한국 노동자 (종업원)와의 知的水準의차이 말하면 企業의 前者는 최소한도의 운영방침및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두째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집합에서 同教授는 人間의 不信을 전제로하고 인간은 태만하고 게으르고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나타내지않는다 했다。한편 그것에 반대적인 假說로서 인간은 自我充實로서 조직목표를 위하여 노력헌신 할수 있다고 했다。따라서 이러한 것을 잘 調整하므로써 人間을 조직목표 달성에 헌신케할수있다고 示唆하고 있다。

이러한 諸企業에 있어서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적 難題가 너무나많다。

<4>

이상 휴우먼리레이션의 變態와 휴우먼리레이션의